

광주은행 상반기 당기 순익 역대 최대 1229억원

전년보다 18.5%(192억원) 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권 최고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지역밀착·포용금융 더욱 강화”

광주은행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8.5%(192억원) 증가한 1229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은 2017년 840억원, 2018년 907억원, 2019년 919억원, 2020년 858억원, 2021년 1037억원 등으로 성장해왔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634억원으로, 전년(1379억원)보다 18.5%(255억원) 증가했다.

자산건정성 지표로 꼽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비율 모두 0.29%로, 은행권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15.30%, 보통주 자본비율은 14.47%를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성과가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을 위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 경영이념의 결과라고 자평하며 포용금융 강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이후 추가 인상이 점쳐지면서 광주은행은 자사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세웠다.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금융대출



송중욱 은행장.

금리는 2.0%포인트 내리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는 기한 연장 때 최대 0.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기 연장 때 대출 금리가 7.0% 초과하면 최대 1.0%포인트 감면된다.

광주은행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 및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중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내실경영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미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비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상반기 광주은행은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에 꼽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 소형그룹 1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선정 2021년 지역 재무자 평가 ‘최우수’ 등급에도 선정됐다.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넓히는

은행을 가리는 금융위원회 2021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에서는 소형은행 1위에 뽑혔다.

지역밀착경영의 성과로 광주시와 5개구 금고, 전남 5개 시 금고 전담 은행을 맡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10억원 기부클럽에 가입하며 지역상생 행보도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3만897건, 1조3943억원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71억1000만원,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올해 들어서는 광주시와 광산·동·서·북구와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2억5000만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특별보증 대출 규모는 총 75억7500만원이다.

송중욱 은행장은 “사상 첫 빅스텝과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된 경기 등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되지만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지역밀착경영과 고객중심의 현장경영,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밀착경영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전문건설업체 올 시공능력 평가 광주 철근·콘크리트, 전남 지반포장 업종 강제

도양기업 1위·삼지도건 2위

광주·전남 전문건설업체의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도양기업(주)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전남 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사능력을 종합평가한 결과, 도양기업(토공)이 1305억7100만원으로 광주·전남 전문건설업체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광주업체인 삼지도건(주)으로 1211억 3500만원, 대진산업개발(주)(697억2700만원), 쥘다스코(662억1400만원)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 소재 기업 상위 10위 업체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종이 8개사나 이름을 올려 강세를 보였고, 전남에서는 지반조성포장사업이 6개사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직전 3개년간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의 자료를 종합 평가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건설협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 산정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말 공시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아울렛 남악점 집 수리 봉사 롯데아울렛 남악점 직원들과 무안소방서는 지난 29일 무안군 해제면 한 고령자(91) 집을 찾아 오래된 주방기구와 시설물을 교체·보수하는 ‘사랑의 집 수리 러브하우스’ 봉사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제공>

전남도, 71개 ‘유망 중기’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3년간 시설·운영자금 융자 상향

이자우대·박람회 참가 등 지원

전남도가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71개 업체를 ‘2022년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재무구조 건전성·수익성·성장성 및 기술력, 일자리 창출 등에서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곳이다.

이 기업들은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3년 동안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를 상향, 시설자금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운영자금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3년간 투입할 예산은 시설

자금 최대 1420억원, 운영자금 최대 355억원 규모다.

이자 지원도 늘려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금리 지원을 2.0%에서 2.5%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금리 지원을 1.1%에서 1.4%로 확대한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혜택도 준다.

전남도가 조사한 결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이 기

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지원한 115개 기업이 여러 방면에서 성장세를 보였다.분야별 평균 매출액 4% (737억원), 수출액 20% (859억원), 연구개발(R&D) 투자액 25% (175억원), 고용 1% (54명)가 증가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광장 모아엘가 그랑데’ 그랜드 오픈

광주 월산동에 헤림건설 시공

빛고을 무등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무등광장 모아엘가 그랑데’ (조감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들어서는 ‘무등광장 모아엘가 그랑데’는 헤림건설(주)이 시공을 맡는다.

지난 3월16일 조합추진위와 헤림건설은 공동주택 신축사업 협약을 맺었다.

‘무등광장 모아엘가 그랑데’는 선호도가 높은 84㎡, 113㎡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예정) 건설로 이른바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이 조성되고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 맘스데이선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는 주월초, 봉주초, 백운초, 농성초, 무진중, 서광중, 서석중 서석고, 광덕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했다고 추진위 측은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특성화고 학생 FTA 실무사 양성교육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 실무사 양성교육’ (사진)을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FTA원산지실무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취업률 증진과 지역 기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무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 내 특성화고인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송원여상, 전남여상 등 3개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광주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원산지실무사 자격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이론 ▲FTA 원산지실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받았으며, 하반기 국제원산지 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원산지실무사’ 자격 취득에 도전하게 된다. 자격증 시험과 관련 제반 경비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3개월째 추락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업의 경기전망이 차가워져 얼어붙고 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 등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가 닥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3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14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8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8.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78.5)을 밑도는 것으로, 전월(83.2) 대비 5.2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9.5)보다도 1.5포인트 떨어졌다.

SBHI는 100 이상이면 연합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음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월(82.3)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78.7로 전망됐고, 전남은 전월(84.1) 대비 6.8포인트나 추락한 77.3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5.0로 전월(84.2) 대비 9.2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81.1로 전월(82.1)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5월(99.5) 이후 6월(90.0), 7월(83.2)에 이어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된 것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7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는 데다, 여름 휴가철 조업일수가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가 위축됐다는 게 경기중앙회의 분석이다.

향목별 전망을 보면 내수판매(83.4~79.2), 수출(98.5~79.0), 경상이익(80.9~75.7), 자금사정(82.3~79.2) 전망과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5.9~97.7) 까지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7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여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58.9%)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건비 상승(50.5%), 내수부진(49.5%),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46.3%)이 뒤를 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

1년 6개월만에 감소세

지난 6월 전남 화학제품 생산이 전년보다 11% 감소하면서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는 2.5% 증가하고, 전남은 2.0% 감소했다.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지난 2020년 12월(-2.7%)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는 화학제품 생산이 2021년 1월(-7.8%)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

지난 6월 전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1.2%나 감소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력 업종인 화학제품 산업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전남 화학제품 출하지수는 전년보다 12.5% 감소하고, 재고지수는 23.4% 증가했다.

화학제품 산업 영향을 받아 전남 광공업 출하지수는 5.1% 감소, 재고지수는 15.7% 증가했다.

한편 광주 광공업 생산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14.6% ↑)과 자동차(6.7%)는 증가했고, 김치냉장고 등 전기장비(-15.2%)와 에어컨 등 기계장비(-13.1%), 금속기공(-17.4%)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도복권 (제102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2	13	31	32	41	34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619,118,475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260,477	76
3	5개 숫자일치					1,452,907	2,786
4	4개 숫자일치					50,000	138,907
5	3개 숫자일치					5,000	2,290,094